

여명을 밝히는 닭의 해가 모두의 소망으로 열렸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면서 세상의 안내자로 정진하자는
서원으로 삼아가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이루신 덕화(德化)의 지혜로움을 모두가 따르고
대중들은 사회 곳곳에 맑은 기운이 넘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건강함으로 전해주시는 고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법체청안(法體淸安)하시어
성취하신 공덕이 국민과 사회의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1년 정유년 새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